제170차 안산시의회(제2차 정례회)

시정질문 서면질문·답변서

안 산 시 의 회

제170회 안산시의회(제2차 정례회)

시 정 질 문

[서 면]

정 승 현 의원

4. 광덕고등학교 대중교통 노선 확보 및 교통편의 시설 설치의 건에 대하여

내년 3월 개교예정인 광덕고등학교의 경우 이 지역을 통과하는 대중교통 노선이 전무할 뿐 아니라 협소한 인도와 주행차량의 감속시설이 미비해 교통사고 요인이 높다할 수 있다.

단기적으로는 개교 이전에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각종 교통시설의 보완이 이루어져야하고 장기적으로는 대중교통 노선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?

2009. 12. 10.(목)
안산시의회 본회의장

제170회 안산시의회(제2차정례회)

시정질문 답변서

[서 면]

< 일괄질문 : 2명 3건 >

○ 정 승 현 의원 : 1 건
○ 김 명 연 의원 : 2 건

안 산 시

□ 정승현 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 「광덕고등학교 대중교통 노선확보 및 교통편의 시설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.

< 질문 요지 >

○ 내년 3월 개교예정인 광덕고등학교의 경우 이 지역을 통과하는 대중교통 노선이 전무한 바 통학여건이 절대적으로 불편함

○ 또한 도보로 통학할 경우에도 협소한 인도와 주행차량의 감속시설이 미비해 교통사고 요인이 높은 실정인바, 이에 대한 해결책은?

○ 2010년 3월 개교되는 광덕고등학교는 상록구 월피동 산 236번지 일대에 대지면적 12,400㎡에 지하1층 지상5층 규모로 건립되어 신입생 300명을 배정받아 설립되는 학교입니다.

○ 안산천 사거리에서 안산예술고등학교 방향으로 순환로를 따라 500m 떨어져 있으며, 도로는 편도 2차선 급경사로와동 방향에서 직진하는 차량의 과속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내재해 있는 등 학교의 주변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.

○ 우리시에서는 학생들의 통학을 원활하게 하기위하여 사전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구조적으로 편도 2차선 도로에서는 대형버스의 회차가 어려우며, 또한 한교 앞 전봇대의 지장물로 인하여 더더욱 회차할 수 없는 지역으로 판단되었습니다.

○ 따라서 대중교통의 접근이 용이한 안산천 사거리에 월피동을 경유하는 버스노선 중 6개노선 66대를 변경운행 토록 조치하여 안산 각 지역에서 광덕고로 통학하는 학생들의 교통불편을 최대한 해소토록 하겠습니다.

○ 향후 도로여건이 개선되면 학교 앞까지 연계되는 대중교통 노선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.

○ 또한 학교앞 신호등 설치 및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 등을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학교 앞 교통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하겠습니다.

□ 김명연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신길택지개발지구내 근린공원 조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.

< 질문 요지 >

○ 신길택지지구가 준공이 되어 공원이 우리 시로 관리이전이 되면 우리시는 막대한 시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니 공원조성을 토지주택공사에 강력히 요구하여 주민들의 최소 요구사항인 산책로 개설 등 공원조성이 준공 전에 이루어 지도록 하기 바람.

○ 무명산은 신길택지개발사업지구내 녹지보전과 지역주민들의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근린공원으로 지정하여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.

○ 그러나, 근린공원조성 승인시 해오라기와 쇠백로 서식지를 보전하는 조건으로 승인하였으나 현재의 주변환경은 택지개발로 인한 소음과 진동, 비산먼지 등으로 인해 해오라기와 쇠백로의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어

○ 토지주택공사에서 환경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용역을 2005년 시작하여 2009년 10월 완료할 계획이었으나, 사업기간 연장으로 2010년 7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.

○ 따라서 모니터링용역이 완료되는 2010년 7월 용역결과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산책로 개설 등 공원조성 계획변경을 협의하여 신길택지개발사업 준공인가 이전에 순환산책로 개설과 다양한 공원시설이 추가설치 될 수 있도록 협의하여 우리시 재정이 재투자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.

□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신길택지개발지구의 소음 저감 대책강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.

< 질문 요지 >

○ 신길지하차도 공사를 하면서 차량정체, 도로 훼손, 분진, 소음 등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며, 특히 차량소음 문제가 가장 심각하므로,

○ 대한토지주택공사와 적극 협의하여 방음대책 설계 재검토 등 소음저감 대책 제시

○ 신길지하차도 공사는 총연장 1,080M로 2008년 8월 25일 착공해서 내년 6월 9일 완공예정으로,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필한 후, 주식회사 케이알산업에서 시공 중에 있으며,

○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동 공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시점검을 실시하였고, 일부 구간에 대하여는 교통소음을 측정하는 등 발주처인 대한토지주택공사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.

○ 아울러 삼일로 삼정주유소 사거리의 임시도로 법면 녹화문제는 먼지, 소음 발생현황과 주변여건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공사 준공 전에 방음과 미관을 고려하여 이에 알맞은 수종을 선택 식재하도록 협의 하겠습니다.

○ 또한, 신길택지개발지구 전체의 환경피해 저감을 위해 2010년 1월 중에 발주처와 우리시 관계 부서와의 대책회의를 개최해서 주민의 쾌적한 삶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